***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UNIVERSITY – MIKE BICKLE & STUART GREAVES INTIMACY WITH THE TRINITY IN THE CONTEXT OF ESCHATOLOGY***

Session 3 The Trinity: The Realm of the Fire of God’s Love  
 제 3강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불의 영역

# TRINITARIAN FELLOWSHIP: DWELLING IN EVERLASTING BURNING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히 타오르는 불에 거함

***14“… who among us shall dwell with the devouring fire*** *(God’s glory, presence, and love)****? Who among us shall dwell with everlasting burnings*** *(God’s glory, presence, and love)****?” (Isa. 33:14)*“…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 (하나님의 영광, 임재, 그리고 사랑)**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 불 (하나님의 영광, 임재, 그리고 사랑) 과 함께 거하리요…”** **(사 33:14)**

* 1. Jesus prophesied that there is coming a time of great pressure on the earth. In those days many will be gripped with four predominant negative emotions1 due to a ***disconnect*** with Jesus through prayer (***Mt. 26:41***) and a ***disconnect*** (***Rom. 11:25***) from the plan and storyline of heaven – the gospel.  
     예수님은 땅에 큰 압력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네 가지 주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 잡힐 것이다. 이는 기도를 통한 예수님과의 **단절** (마 26:41)과 그리고 하늘의 계획과 이야기의 줄거리, 곧 복음으로의 **단절** (롬 11:25) 때문이다.
  2. Isaiah said that because of the intensity of the end-time crisis youthful resilience will not stand. 2020 showed initial, emerging signs of deteriorating youthful resilience. In the year 2020, because of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a larger-than-average amount of young adults (ages 18- 24) reported signs of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 (56%). Compared to all adults, young

adults are more likely to report substance use (25% vs.13%) and suicidal thoughts (26% vs.11%). 이사야는 마지막 때의 위기의 강도가 크기에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에 젊음의 회복력이 악화되는 초기 징조가 나타났다. 2020년의 코비드-19의 세계적 유행으로 18-24세의 청년들 중 평균보다 더 많은 이들이 불안과 우울증의 증세(56%)를 보고했다. 모든 성인들에 비해, 젊은 청년들은 약물 사용(25% 대 13%)과 자살 충동 (26% 대 11%)을 더 보였다.

***30Even the youths shall faint and be weary, and the young men shall utterly fall …” (Isa. 40:30)*30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사40:30)**

* 1. The answer Isaiah gives to the end-time church is to live lives of ***“waiting” on the Lord***, the experience of entering into the Trinitarian conversation. The Spirit calls the Church to her *inheritance* of experiencing God’s love in the context of engaging with the Trinity in fellowship.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주는 이사야의 대답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대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유업으로 교회를 부르신다.

***3“But those who wait 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they shall mount up with wings like eagles, they shall run and not be weary, they shall walk and not faint.” (Isa. 40:31)*31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 40:31)**

* 1. The negative emotions Jesus warned about can be summed as “the love of many growing cold.” We are called to *dwell with* and *experience* the realm of fire of God’s love as the ***only*** safe place to be.  
     예수님이 경고하신 부정적 감정들은 “차가워 지고 있는 많은 이들의 사랑” 때문이라고 정리하셨다. 우리는 **오직** 안전한 장소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의 영역에 거하도록, 그리고 경험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12“And because lawlessness will abound, the love of many will grow cold.” (Matt. 24:12)*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 24:12)**

***6“Set Me (****Jesus****) as a seal…for love*** *(the love of God)* ***is as strong as death, jealousy as cruel (****demanding****) as the grave; its flames are flames of fire, a most vehement flame. 7Many waters (****fear, offense, lust, deception****) cannot quench love, nor can the floods drown it.” (Song 8:6-7)*6너는 나** (예수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요구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많은 물** (공포, 기분 상함, 정욕, 속임)**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아 8:6-7)**

* 1. The Father’s answer is an end-time witness anointed with a seal of fire, the spirit of burning (Isa. 4:4) The glory of the Trinity is expressed as fire which Isaiah calls *His everlasting burnings*. We are invited to ***dwell*** in God’s fire by ***interacting*** 2 with the Trinity, ***receiving*** God’s love from Them and one another as well as ***release*** of the fire of His love back ***to God***, to one another, and to the world.  
     아버지의 답은 불타는 영, 불의 인으로 기름 부어진 마지막 때의 증인이다 (사 4:4). 삼위일체의 영광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원한 불타오름** 이라고 말한 불로 표현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 안에 거하도록 초대되었다. 이것은 삼위일체와 함께 **상호작용함**으로 그분들과 우리 서로의 사랑을 **받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 서로에게로, 세상에게로 그 사랑을 **풀어내는 것**을 말한다.
  2. Jesus’ desire is for the Church to be brought into the everlasting burnings, into the Trinitarian fellowship.  
     예수님의 갈망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교회를 모으는 것이다.

***5“…glorify Me…with the glory which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22And the glory which You gave Me I have given them,…24Father, I desire that they…Me may be with Me where I am, that they may behold My glory which You have given Me;” (Jn. 17:5, 22, 24)*5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2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 24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 17:5, 22, 24)**

1 Mike Bickle uses the acronym F.O.L.D for Fear (Lk 21:26), Offense (Mt 24:10), Lust (Lk 21:34) and Deception (Lk 21:8). 2 Speaking words – Hos. 14:2

# THE NAME OF GOD AND THE REALM OF FIRE 하나님의 이름과 불의 영역

***24For the Lord your God is a consuming fire, a jealous God. (Deut. 4:24)*24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 4:24)**

***6 “I have manifested Your name to the men whom You have given Me out of the world. (Jn. 17:6)*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요 17:6)**

* 1. Moses was the first to encounter the realm of God’s fire in the context of the revealing of the divine Name YHWH as Moses experienced the transcendence of God’s glory in the Name. When God revealed the divine Name, He also revealed Himself consumed with fire in God’s zealous love.  
     모세는 하나님의 불의 영역을 만났던 첫 번째 사람으로, 신성한 이름 야훼를 계시해 주실 때에 하나님 이름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영광을 경험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계시하셨을 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과 소멸하는 불로 스스로를 계시하셨다.

***13Then Moses said to God, “…and they say to me, ‘What is His name?’ what shall I say to them?” 14And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Thus you shall say … ‘I AM has sent me to you.’” (Ex. 3:13-14)*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 3:13-14)**

* 1. The divine name of YHWH is filled with awe and mystery. There is the realm of fire associated with the revealing of His Name. I AM THAT I AM (***YHWH, Ex. 6:2***) speaks of the Godhead as the Source, Creator, Sustainer and the Completer of all things related to human affairs or creation which have their motion, development, and existence in Him (Gen. 1:1-3; Jn 1:1-3; Heb. 1:1-3).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경이와 신비로 가득 차 있다. 불의 영역은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와 연관 되어 있다.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출 6:2**)는 신격에 대해 근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유지하는 분이시고, 인간사 또는 움직임, 발달 및 그분 안에서의 존재를 가진 창조에 연관한 모든 것의 완성자라고 말씀 하신다 (창 1:1-3; 요1:1-3; 히 1:1-3).

***2And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flame of fire from the midst of a bush … behold, the bush was burning with fire, but the bush was not consumed” (Ex. 3:2)*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 3:2)**

***17Then Manoah said to the Angel of the Lord, “What is Your name…” 18And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him, “Why do you ask My name, seeing it is wonderful (filled with wonder)?” … 20…the Angel of the Lord ascended in the flame of the altar!… (Jdg. 13:17-20)*17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 18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자)라 하니라…20…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삿 13:17-20)**

* 1. In John 17, Jesus, the greater Moses, declared that He came to *manifest to us* (***17:6***), *keep us in* (***17:12***), and *declare to us the Name* (***17:26***). In the Old Testament, God was revealed as YHWH which means the Source, Sustainer of all, and the Spirit (Isa 11:2). In the NT, Jesus shows the Name is revealed as intensely personal and familial–revealed as Father and Son (Jn. 8:58, Jn. 17:26).  
     요한복음 17장에서,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 선포하셨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17:6),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17:12), 그리고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17:26)였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유지하는 분이시며, 성령 (사 11:2)이심을 의미하는 야훼로 계시되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가장 개인적이고 친근한 아버지와 아들로서 계시된 이름을 보여주신다 (요 8:58; 17:26).

1. The Father is “I AM” (Jn. 17:26, Ex. 3:14).   
아버지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요 17:26, 출 3:14)

2. The Son is “I AM” (Jn. 8:58, Ex. 3:14).  
아들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요 8:58 출 3:14).   
3. The Spirit of God is “I AM” (Isa. 11:2, Ex. 3:14).  
하나님의 영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사 11:2, 출 3:14).

* 1. The Father, Son, and the Spirit are the *everlasting burnings* and the *Fellowship of Eternal Flame*.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은 **영원히 타는 불**이고 **영원한 불꽃과 같은 교제** 하시는 분이시다.
     1. The Father is consumed with fire (Rev. 4:3).  
        아버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계 4:3).
     2. The Son is consumed with fire (Eze. 1:27).  
        아들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겔 1:27).
     3. The Spirit is consumed with fire (Rev. 4:5).  
        성령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계4:5).
  2. The primary onramp into the realm of fire is by dialoguing with God through the Word (Jer. 23:29).  
     불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주요 진입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렘 23:29).

***32And they said to one another, “Did not our heart burn within us while He talked with us on the road and while He opened the Scriptures to us?” (Lk. 24:32)*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눅 24:32)**

***2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i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Ps. 1:2)*2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 1:2)**

# THE LOVE OF GOD AND THE REALM OF FIRE 하나님의 사랑과 불의 영역

* 1. The primary theme that Jesus speaks to His disciples about, in ***Jn. 13-17***, is the subject of God’s love and glory. Jesus’ main objective is to lead us into the revelation of God’s divine love and the experience of the glory that He possessed with His Father before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Our destiny is to be swallowed up into the eternal fellowship of the Godhead forever.  
     **요한복음 13-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의 주된 목표는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의 계시와 땅의 기초를 놓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소유하셨던 영광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부르심은 신격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영원토록 삼켜지는 것이다.

***9God is faithful, by whom you were called into the fellowship of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1 Cor. 1:9)*9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전 1:9)**

***4…and truly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1 Jn. 1:3)*3…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일 1:3)**

***22“And the glory which You gave Me I have given them, that they may be one just as We are one…” (Jn. 17:22)*22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22)**

* 1. As love in the culture and the world continues to grow cold, *understanding* the Trinity as our **model** and *intimately engaging* with the Divine Community, the *everlasting burning*, as our **source** will equip the heart of the Church in the fullness of the love of God in times of great pressure.  
     문화와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는 때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모델**로써 신성한 공동체가 **친밀하게 참여**해야하는 것이요, **영원한 불타오름**은 우리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큰 압박의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교회의 마음을 준비시킬 것이다.
  2. In John 13-17 Jesus envisions, calls, and equips the Church to engage with God in order to walk fully in five components of the love of God He wants to us to experience and express.  
     요한복음 13-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표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걸어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도록 교회에게 비전을 주시고, 부르시며, 준비시키신다.

1. ***God’s love for God*** (Jn. 13:3; 14:31; 15:9; 15:12; 17:23-24, 26)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요 13:3; 14:31; 15:9; 15:12; 17:23-24, 26)

2. ***God’s love for us*** (Jn. 13:1, 23, 34-35; 14:21, 23; 15:9, 12; 16:27; 17:23)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요 13:1, 23, 34-35; 14:21, 23; 15:9, 12; 16:27; 17:23)

3. ***God’s love in us towards Him*** (Jn. 14:15, 21, 24, 28; 15:12, 17; 16:27; 17:26)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의 하나님의 사랑** (요 14:15, 21, 24, 28; 15:12, 17; 16:27; 17:26)

1. ***God’s love in us towards another*** (Jn. 13:34-35; 15:12, 17)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 안의 하나님의 사랑** (요 13:34-35; 15:12, 17)
2. ***God’s love in us for hostile world through the apostolic witness*** (13:35; 14:12; 15:18-27; 16:8-9)  
   **사도적 증언을 통해 적대적인 세상을 향한 우리 안의 하나님의 사랑** (요 13:35; 14:12; 15:18-27; 16:8-9)  
   1. God’s love for the world through apostolic witness is expressed by the ***fellowship*** sufferings. Peter wanted to lay down his life; however, Jesus told him that when it comes to accessing the Godhead only Jesus’ blood could accomplish this. Yet He prophesied to Peter that he would follow Jesus’ path of suffering later. The end-time Church will enter in the divine fellowship of suffering to reach a hostile world and call them to enter into the Divine Community through the born-again experience.  
      사도적 증인을 통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의 **교제**에 의해 표현되어진다. 베드로는 그의 목숨을 내려놓길 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격으로 나아가려 할 때, 오로지 예수님의 피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중에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적대하는 세상에 다가가서 그들로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고난의 신성한 교제 (고난에 참여함)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36Jesus answered him, “Where I am going you cannot follow Me now, but you shall follow Me afterward.” (Jn. 13:36)*36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 13:36)**

***10that I may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being conformed to His death…” (Phil. 3:10)*10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 3:10)**

***1…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ich we have looked upon… concerning the Word of life—2… we have seen, and bear witness, and declare to you that eternal life which was with the Father and was manifested to us—3that which we have seen and heard we declare to you, that you also may have fellowship with us; and truly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1 Jn. 1:1-3)*1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일 1:1-3)**